

소나무 13만그루 효과...곡성군, 415곳 태양광 설치

'신재생에너지 복합 사업' 선정 36억 투입 진행률 58% 달해 자부담 30% 가량 줄어 인기

곡성군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통해 올 연말까지 415개소에 태양광 등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주관 '신재생에너지 복합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곡성군은 올해 3월부터 곡성읍과 오곡면 오지리 일원에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를 시작했다.

주택, 공공건물, 일반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설치를 추진해 올해 태양광 375개소, 태양열 39개소, 연료전지 1개소를 구축한다.

총 36억원(보조 30억원, 자부담 6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의 현재 진행률은 전체 415개소 중 58%에 도달했다.

올해 사업이 예정대로 완료되면 태양광과 태양열을 통해 연간 약 633TOE(원유 1t에 해당하는 열량)의 화석에너지 대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소나무를 13만7928그루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경우 1개소 당 연간 3800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60만원을 절약하는 셈이다.

보일러 등유를 대체할 수 있는 태양열의 경우에는 하루에 9000kcal를 절약할 수 있는데, 연간으로 치면 42만원가량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유사한 다른 사업에 비해 자부담을 30%가량 덜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일반 주택지원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30%를 자부담하는데, 융복합사업은 20%만 자부담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는 물론,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



곡성읍 한 가정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곡성군은 연말까지 415곳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한다.

대할 계획이다"며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에도 응모해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목포 입암산에 유아숲놀이체험원

전남도교육청-목포시 설립협약

목포 입암산 생태공원 내 잔디광장에 유아들을 위한 '전라남도 유아숲놀이 체험원'이 설립된다.

전남도교육청과 목포시는 지난 15일 도교육청에서 장석웅 전남교육감과 김중식 목포시장, 전라남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유아숲놀이 체험원'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은 실내의 숲놀이 체험시설 구축과 실외놀이 및 휴식공간 조성, 유아숲놀이 프로그램 개발, 주말 숲놀이 가족프로그램 제공 등 숲놀이 체험원의 설립-운영을 주관한다.

목포시는 숲놀이체험원 부지 제공과 부지주변 숲놀이 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 숲과 주차장 등 공원시설 이용 제공 등 숲놀이 체험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과 목포시의 이번 협약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숲놀이 체험 공간이 탄생될 예정이며, 서부권 유아들의 즐거운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교육청은 그동안 전남도유아교육진흥원이 동부권인 순천에 위치한 서부권 유아들의 이용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목포시 입암산 생태공원 내 잔디 부지에 유아숲놀이 체험원 설립을 검토하고 목포시에 협력을 요청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전라남도 유아숲놀이 체험원이 개방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자연공간에서 질 높은 숲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전남 서부권 유아들이 창의적인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꼬들꼬들 면발' 보성 녹차라면 나왔어요



김철우(가운데) 보성군수 등 관계자들이 최근 출시한 녹차라면을 들어 보이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차생산자조합·제이유통 바로 마실 간편식 개발 집중

보성녹차가 라면으로 출시돼 음료시장을 넘어 식품시장을 공략한다.

보성차생산자조합과 (주)제이유통은 유기농 녹차 3%를 넣은 매콤하고 담백한 보성 녹차라면을 출시했다.

보성 녹차라면은 보성차생산자조합에서 생산한 유기농 찻잎을 녹차면에 넣어 증기로 찐 증숙면이다.

면발이 오랜 시간 꼬들꼬들하고 국물 맛이 깔끔하고 담백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녹차라면은 보성군 온라인 쇼핑몰인 '보성몰'에서 1박스(20개 들어)에 4만1400원의 할

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보성차생산자조합과 (주)제이유통은 지난 14일 보성군청을 찾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출시된 녹차라면 4000개를 기탁했다.

보성군은 가정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바로 마실 수 있는 RTD(ready to drink)와 간편식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건강함과 간편함 모두를 추구하는 신 소비패턴에 맞는 제품을 지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식품 원재료로 차가 사용되어 차 소비가 확대되고 농가 소득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최규용(오른쪽) 한국목조건축협동조합 이사장과 운영장 남원산림조합장이 지난 15일 남원산림조합에서 호남지역 국산목재 우선 공급 협약식(MOU)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남산 목재 우선 공급...고부가가치 구조재 생산

목조건축조합-남원산림조합 협약

한국목조건축협동조합(이사장 최규용)이 남원산림조합과 호남지역의 국산목재 우선 공급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목조건축협동조합은 화순군 이양농공단지에 소재한 기업이다. 올해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목재산업단지 유치해, 국산 낙엽송 구조용 집성목재의 생산, 공급을 위한 호남지역 거점을 만들 계획이다. 또 매년 지역 언론사와 공동으로 목조건축 설계, 시공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호남지역 내 목조건축을 선도하고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원산림조합은 한국목조건축

협동조합에 지역산 국산목재를 최우선으로 공급해 국산목재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구조재를 생산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유인(주)의 대표이기도 한 최규용 이사장은 "6년간 집성목재 KS인증 제품을 생산 및 경영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12월 공모 예정인 산림청 목재산업단지 공모에서 반드시 전남지역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올해 구조용 집성목재 및 합판코어 CLT의 신기술 인증 및 개발이 완료된 만큼 본격적인 시장진입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집성목재를 생산하고 프리컷 라인을 구축해 중·고층 목조건축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영암군, 학교 찾아가는 현장체험

영암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활력을 주고자 학교로 찾아가는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사계절 꽃 피는 교실'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지도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아이들과 함께 특수 용역으로 처리된 꽃들로 만드는 '플라워 모빌'과 스칸디아모스와 소품 등을 대나무 재반에 꾸미는 '소원 재반'을 만든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25일부터 아트 토크쇼 '톡톡톡' 담양해동문화예술촌, 3차례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이 미술생태연구소, 인문학 교육연구소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공공미술을 주제로 월간 아트 토크쇼 '톡톡톡'을 3차례 진행한다.

해동문화예술촌 오색동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대중강연과 전문가 집담회의인 라운드 테이블 방식을 통해 호남권의 공공미술 담론을 형성하며 발전적 도시모형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두 섹션 '대중강연: 공공미술, 이론과 실제'와 '라운드 테이블: 공공미술 탁상공론'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양진호 인문학교육연구소장의 진행으로 이섭(독립큐레이터), 윤현옥(aec 비빔밥 대표), 백종욱(미술생태연구소장), 임재일(사회문화예술연구소 '오늘' 소장), 윤종필(커뮤니티 아티스트) 등 5명이 강연에 나선다. 라운드 테이블은 박찬국 작가 등 5명이 패널로 나선다.

해동문화예술촌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분야 기획자, 문화활동가, 작가, 행정가, 이론가가 동반 성장하길 바란다"며 "공공미술 담론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